

의상작품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 연구

-평면구조의 의상작품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f Semiotical Approach for Analysis Costume Works

-Focused on Flattened Costume Works-

박 현 신 (Park, Hyun Shin)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본 연구는 '99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서론

2. 의상작품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 2.1. 기호학과 의상
- 2.2. 의상의 구성요소

3. 의상의 평면화 현상과 작품 사례분석

- 3.1. 이세이 미야케의 아부라 가미 코트
- 3.2. 비벌리 시메스의 분홍색 팔
- 3.3. 마리안 쉘의 전통의상의 안과 밖

4. 결론

참고문헌

(要約)

인체에 대한 거부, 인체의 부재의 다양한 의미를 평면화된 의상으로 전달하고자 한 세 작품을 분석한 결과,

- 1) 손으로 가공한 종이 / 코트, 평범한 / 평범하지 않은, 의도적인 / 우연히, 자연적인 / 인위적인 요소들의 대립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대립과 조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2) 입체 / 평면, 벽면 / 바다, 상체 / 하체 등의 요소들의 대립을 통해 인체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엿 볼 수 있다.
- 3) 안 / 밖, 하나의 드레스 / 덧입은 드레스, 완전한 평면 / 불일치의 공간은 전통적인 옷입기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옷입기를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s non-verbal communication medium, clothing has various form to express the artist's statement, for example, flattened clothing.

On this thesis, three flattened clothing are analyzed, these works convey the meanings,

- 1) tradition / contemporary
- 2) cynical attitude about body
- 3) new concept to wear

(Key words)

- : Flattened clothing
- Tradition / Contemporary
- Cynical attitude about body
- New concept to wear

1. 서론

의상이란 통상적으로 미학적인 차원에서의 창작물이 아닌 “입는다”는 기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예술성과 의미창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원시 상태의 의상은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신체보호를 전제로 하는 제2의 피부 역할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의상의 미학적, 예술적 가치가 강조되고 기호학의 등장으로 의미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의상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행해지고 있다.¹⁾ 역사적인 관점에서 의상을 살펴보면 첫째, 물리적인 보호의 기능, 즉 확장된 피부²⁾로서 그 본질인 의의 될 수 있으며, 신분이나 계급을 상징하는 사회적 기능, 또한 표현적 기능을 가진 의상은 초기의 장식적인 단계를 거쳐 어느 정도의 미의식이나 표현의 의지를 볼 수 있었으며, 20세기 초에 이르러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로의 의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³⁾ 특히 실체의 기호화 시대에 의상을 의미작용을 통해 다의성을 갖는 기호체계로 다루는 일은 기존의 실체로서의 의상의 개념을 반전시키고 전복시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상이 그것을 매개체로 하는 시각적 자아를 가지는 어떤 이미지인 시각예술의 한 형태로⁴⁾ 인식이 되면서 의미 전달체로서의 새로운 기능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모두 의상의 본질에 관한 논의로 하나의 의상에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의상에 있어서 의미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의 접근과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원리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끌 수 있는 분석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의상은 건축이나 도자기 등과 유사하게 실용적인 가공물이어서 그 형태, 질감과 장식은 추상적, 형식적, 상징적 내용과 기술적인 발생의 견지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의상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이 되어 보는 것은 의상의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하는 의미가 있으며, 예술처럼 그 자체로서 힘을 가지는 특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형 기호학적 접근 방법과 의상의 형태에 대한 분석 방법을 결합하여 의상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추출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근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인체 부재의 현상, 특히 의상으로부터 인체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고자 시도한 평면화 현상이 두드러진 이세이 미야케의 아부라 가미 코트, 비버리 시메스의 분홍색 팔, 마리안 섀플의 전통의상의 안과 밖의 새 작품을 선정하여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의 기본 개념인 대립구조를 의상에 나타난 시각기호들을 통해 파악하고 “중심기의” 즉, “센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대표적인 예로 Roland Barthe의 System de la mode가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한명숙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마살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3) 미술공예운동 이후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의상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4) Anne Hollender, Seeing through Clothing, The Viking Press, 1978, p.311

5) Hollender, 전제서

2. 의상 작품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2-1. 기호학과 의상

기호학은 의미 일반에 관한 이론으로 의미의 파악과 생성의 모든 조건을 일관된 상위 언어(Meta-language)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상징체의 창조와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징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학문이다.⁷⁾ 언어학의 측면에서 꾸준히 연구 발전되고 있는 기호학은 소쉬르 이후 크게 “전달의 기호학(Semiology of communication)”과 “의미작용의 기호학(Semiology of signification)”으로 구분된다. “전달의 기호학”은 전달의 의도가 분명한 인위적인 기호만을 기호로 규정하는데 반해서, “의미작용의 기호학”은 명시적이지 않으면서도 의미작용을 수행하는 비언어적 기호들까지 기호로 간주한다.⁸⁾ 예를들면, 폴랑바르트와 움베르트 에코를 비롯하여 유리 로트만과 같은 수많은 기호학자들은 각기 사진, 패션, 광고, 사물의 체계, 영화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했고 이들 연구는 비언어적 기호체계들의 구성적 특징과 특히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의 문화적 지위를 정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⁹⁾

의상은 모든 인간생활의 불가피한 일부로 중요한 문화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사회학적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심리적, 성적,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검증할 수 있는 풍부하게 상징화된 비언어적 기호체계이다.

기능으로의 의상은 유니폼=특정직에 종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슈트=회사원과 같이 명시적으로 그것이 지시하는 본질, 정체를 즉시 분간해 낼 수 있는 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의상은 곧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의미작용을 통해 다의성을 갖는 기호체계로, 해석자 혹은 착용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의 미디움(Medium)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상의 효용성을 뜻하고 따라서 의상을 입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의상 자체”에 대해 동어 반복적으로 대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상을 입는다는 행위의 “의미”를 묻는 것은 의상을 입을 수 없거나 입지 않았을 때의 상황, 요컨대 의상을 입는 행위에 대립하는 “타자(Others)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써만 의상이나 의상을 입는 행위의 뜻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다.¹⁰⁾

텍스트로서 작품이 지시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태와 그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분석적 지각을 할

6) 장 마리 폴로슈, 박인철 옮김, 조형 기호학, 한길사, p4. 1994.

7)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p12, 1996

8) 이승환, ‘몸’의 기호학적 고찰, 기호학 연구 제3집, 한국 기호학회 역음, 문학과 지성사. 1997. P44

9) 김광현, 거시코드로서의 이데올로기 문제, 기호학연구 제6집. 한국 기호학회. 문학과 지성사. 1999.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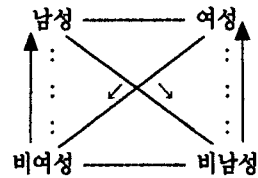
10) 김복영, “웃입기”에 대한 사유 : 반전과 전복의 기호학. 박현신 의상설치전 도록. 1996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즉, 전체의 특성을 관찰하고 전체의 구성과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시간 단위들을 분해하고 그것들을 다시 결합하는 것이다.¹¹⁾ 즉, 작품의 형식적 특질을 이루고 있는 통사구조를 파악하고, 이차적으로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의미구조를 파악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관이 아닌 인위적인 조작이나 전략을 통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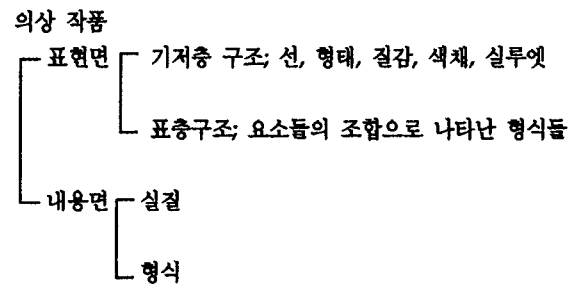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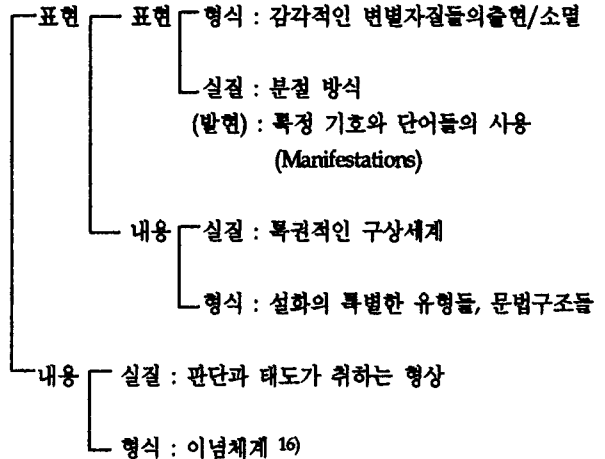
언어, 글, 예술작품 등의 의미는 표현면과 내용면의 두면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어떤 언어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감각적인 자질을 이용하는데 이들은 변별적인 차이를 통해 선택되고 분절된 면을 표현면이라 하며, 내용면은 변별적 차이를 통해 의미작용이 발생하는 면을 말한다. 의상 작품의 탐구 또한 표현면과 내용면을 분리하고 각각의 분리된 면에서 발견되지 않는 단위, 비기호적 자질을 추출하고 이를 체계화 시켜야 한다. 비언어적인 매체를 표현 수단으로 삼는 조형예술은 표현면(signifier)과 내용면(signified)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내용면을 구성하는 범주는 삶/죽음, 자연/문화, 신성/인성, 동일성/이타성과 같은 것이나 표현면에서의 범주나 범주를 이루는 변별자질의 내용이 다르다. 그것은 위상범주(높은/낮은, 오른쪽/왼쪽, 중심적/주변적, 포위하는/포위되는), 형태범주(긴/짧은, 연속적인/비연속적인)와 색채범주(포화된/포화되지 않은, 빛나는/빛나지 않는)로 나눌 수 있으며,¹²⁾ 이러한 분석의 기준은 의상 작품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의상을 보는 방법은 그것들이 어떻게 디자인되었거나 만들어졌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각되어지느냐에 달려 있다.¹³⁾ 의상을 지각하는 체계적인 방법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체를 고려한 형태의 관찰과 관찰된 각 부분은 어떻게 다른 부분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관계에 대한 분석의 단계, 요소들의 시각 관계를 찾고 형태를 요약, 설명하는 해석의 단계를 거친다.¹⁴⁾ 의상의 전체를 하부단위 즉, 색채, 재질, 선, 실루엣 등의 각 요소로 분절하고 분절된 요소들을 다시 결합하여 전체의 의미 구조를 파악한다. 이때 분절의 전체는 대립구조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항대립 구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분석의 절차를 위해 Marilyn R. DeLong의 ABC의 분석방법과 그래마스의 기호 사각형을 활용한다.

기호사각형은 랑그 혹은 하나의 의미체계 내에는 차별만이 존재한다는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요청에 잘 부합하며, 하나의 담화가 실현 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작품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동일한 구조를 구성하는 변별자질들이 유지하는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호사각형을 구축하기 위해 기호학은 언어 내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대립관계, 즉 결성 관계와 질적 관계, 달리 말하면 모순과 반대를 인식한 구조언어학의 지식을 이용한다. 기호사각형의 구성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관계 : 조작 :
 — 반대 → 부정
 — 모순 → 긍정
 함축



2.2. 의상의 구성요소

1) 선

선은 연속과 비연속, 방향, 위치, 길이, 실선 암시선, 분명한 가장자리, 불분명한 가장자리 등을 나타내며 바느질선, 주름, 직물의 문양이나 디테일 장식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직선은 단순함과 솔직함과 관계가 있으며, 러플이나 소재에 의한 길고 부드러운 선은 특별한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동시에 의미를 전달한다.

2) 형태

형태는 내부 구성요소들의 형태와 외곽선의 실루엣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실루엣은 의상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설명

11) Marilyn R. DeLong, 금기숙 옮김,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이음, 1997, p.3.

12) 프로슈, 전게서

13) Hollander, 전게서, p. 311.

14) DeLong, 전게서 pp.13-17.

15) 플로슈, 전게서, pp.37-41.

16) 플로슈, 전게서, p. 31.

되며 인체를 덮고 있는 것, 인체와 밀착된 것, 주변과 개방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분석 할 수 있다. 형태는 단순한 것, 복잡한 것, 평평한 것과 깊이를 가지는 등, 의상 내에서 위치를 차지하여 시선을 유도하므로 의미를 함축한다.

3) 재질

소재는 의상의 표면을 다양하게 보이도록 하며 원근감, 공간적 위치, 점진의 효과, 방향감등을 지시하는 확실한 잡재성을 가지고 있다.

4) 색채

색상, 명도, 채도의 삼속성을 가진 색은 표면을 통합하거나 분리시키거나 하여 형태나 초점을 제공하기도 하고 바탕의 역할을 하기도 하여 여러 가지 시각 관계를 만들어 연상에 의한 의미를 전달한다.

시각적으로 먼저 인지되는 것은 대조적인 요소들이며,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는 의상 내에서의 관계, 의상과 인체와의 관계, 인체를 포함한 전체 의상과 공간과의 관계로 나누어, 사물을 適體制화된 전체(well-organized "wholes")로 인지한다는 게슈탈트(Gestalt)원리¹⁷⁾와 프레그넌츠(Pragnanz, 간결성)의 원리¹⁸⁾에 따라 군집(grouping)과 분리(segregating)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각된다. 특히, 의상은 인체와의 관계,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여러 가지 조형적 요소들이 있으며, 형태에 있어서 구조적 형태와 비구조적 형태로 나누고 비구조적 형태의 경우 선, 형태, 질감, 색채등의 조형요소 이외에 ① 율동적 표현(드레이프, 접힌, 주름, 다양하게 변화하는 윤곽선) ② 흔들림과 휘날림, 당겨짐이 미적 성격을 특성화시키는 요소로 제시¹⁹⁾할 수 있으며, 특히 평면적인 의상의 경우는 인체와 의상 사이의 일치하지 않는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의상 기호는 표현면의 최소단위들 보다는 하나의 의상을 구성하는 "기호들의 의미를 띤 집합"과 "의미 표현 기능"에 더 치중한다.의미의 단서들은 작가들의 재료 선택(고무, 비치는 직물, 펠트, 금속 등등), 구성의 방법(뜨개질, 바느질, 꿰매는 것, 직물이 아닌 것), 색의 사용, 크기, 각 부분들간의 관계나 숫자들에서 찾을 수 있다. 요소들의 수량, 방향, 크기, 시각적 중량, 공간적 위치, 형과 지의 관계, 그림이 가지는 다의성 등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17) 집단화 법칙(The law of grouping)

- 1) 근접의 법칙 (The law of nearness) ; 가까이 있는 사물은 하나의 단위로 보인다.
- 2) 유사성의 법칙 (The law of similarity) ; 서로 유사한 사물들은 하나의 단위로 보인다.
- 3) 완결성의 법칙 (The law of closure) ; 간격을 가지고 있는 사물은 완성시켜 보려고 한다.
- 4) 연속성의 법칙 (The law of continuation) ; 직선이나 완만한 곡선에 놓여진 사물들을 하나의 단위로 보려고 한다.
- 5) 공동성향의 법칙 (The law of common fate) ; 사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자 한다.

18) Pragnanz법칙은 적형식이며 단순하고 균형있는 것으로 사물을 지각하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이차원적인 해석보다 단순하다면 삼차원으로 형태를 보고자 한다.

19) 김혜연, 복식조형의 공간적 특질에 관한 연구 1, 복식 38호, 1998, p.37

이며, 이상의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색, 전체 형태, 실루엣, 선과 모양, 가장자리 등에 대해 묘사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분석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 부분들 사이의 관계와 주변과의 변별성을 가진 단위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해석을 근거로 의상의 형태를 언어화하여 의미전달을 한다.

3. 의상의 평면화 현상

20세기에 들어와 서구문화의 지주가 되어 왔던 확고한 신념과 불변한다고 믿어왔던 기본적인 가설들이 깨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며,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전통과 관습과 절대 진리는 회의와 도전을 받게 되었다.

패션 영역에서 과거의 모든 양식과 디자인에 대한 회의와 단절은 의상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Anti-Fashion 운동과 안티 패션 운동을 넘어서 의상이 기능의 상징이라는 것에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²⁰⁾으로 표현되었다. 안티패션 운동은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지배받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의상 즉, 인체를 중심으로 한 입체적이며, 구조적으로 적절한 비례로 구성된 의상에 대한 반발과 왜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능을 거부하고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우연성이 강조된 의상, 인체의 기본 구조와 비례를 무시한 평면적인 의상을 등장시켰다.

인체에 맞추어 적절하게 고정된 구축적이고 구조적인 의상은 인체를 제한하지만 비구조적 형태의 의상, 특히 직선적인 재단의 평면적인 의상은 특정한 인체를 고려하지 않은 적당한 맞춤새로 인체를 의상으로부터 해방시켜 무한한 자유를 부여했고, 착용자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인체와 직물 사이의 일치되지 않는 공간으로 인한 조형적인 우연성은 비논리적이나 시간성을 가진 또 다른 창조물이 된다.

피부의 확장으로서의 의상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서의 의상은 정체성(Identity)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체로부터 추상화(Abstracted)되고, 인체가 완전히 빠져간간 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의상은 물리적 심리적 보호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의 체계이다.

3-1. 이세이 미야케 (Issey Miyake)의 아부라 가미 코트²¹⁾

1984년 S/S에 발표된 이 코트는 우산을 만드는데 쓰이는 수가공된 기름에 절인 일본 전통의 종이(아부라 가미)로 제작되어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의상의 재료가 아닌 종이를 재료로 선택함으로써 의상에 대한 고정적인 의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의상의 고정적인 기능과 의미에 대한 도전으로 한 장의 천²²⁾으로 들어가 순수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했던 미야

20) 박현신, 카오스·프랙탈적 사고에 기초한 의상의 해체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38호, 1998, P.180,

21) Issey Miyake - Photographs by Irving Penn - New York Graphic Society. New York.1988.

캐는 이 코트

물 통해 평면적인 종이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에서 우산의 재료로 쓰이는 "전통의" "평범한" 소재인 "손으로 가공한" 종이로 제작한 "현대 감각의" "평범하지 않은" 코트는 "기계로" 바느질하여 제작한 것이다. 인체 위에 입혀지지 않았다면 결코 의상으로 생각되지 않을 이 작품에서 인체는 단지 이 코트가 인체 위에 입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진에서 코트와 인체의 관계는 모호하고 상관성이 없으며, 코트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인체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땃땃한" 종이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코트는 "유연한" 인체와의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조형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1 아부라 가미 코트

1) 아부라 가미의 표현면 분석

이 작품의 시각적 자질들의 구성과 역할은

1. 머리를 감싸고 있는 부분
2. 몸통 부분의 사각형과 소매 부분의 삼각형
3. 두 장의 종이를 이음으로서 생기는 직선
4. 소매로 생각되는 부분이 겹쳐짐으로 생기는 짙은 삼각형
5. 주머니의 사각형과 삼각형
6. 머리 윗부분, 목둘레의 끈과 정리되지 않은 박음실로 나눌 수 있다.

아부라 가미 코트의 표현면의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평면 도형인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트의 외적인 형태는 "재단된" 것이 아니라 여섯 개의 사각형을 "접어서 생긴" 삼각형들에 의해 결정되고, 앞 뒤판의 여덟 개의 사각형은 내적인 형태의 구성 요소이다.

22) Issey Miyake, East meets west. Heibonsha Limited, Tokyo, 1978. p.15

삼각형들은 다시 소매의 삼각형과 코트 아래 자락에 이어 붙인 삼각형과 같은 "의도적인" 형태와 소매와 결막이가 겹쳐진 부분의 삼각형과 코트의 앞여밈, 주머니, 어깨부분에서 보이는 접혀 들어가 "우연히" 생긴 삼각형들이 코트의 위와 아래, 좌우에서 대칭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소매와 결막이가 겹쳐 생기는 삼각형은 움직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완전히 겹쳐졌을 때는 하나의 삼각형으로 지각되며, 형태와 색상에서 변화와 자유로움을 준다.

내부의 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비스듬한 사각형, 몸판의 큰 사각형과 같은 비례를 가진 닳은꼴의 형태²³⁾인 주머니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도적으로" 붙인 주머니의 사각형은 같은 형태의 반복으로 인한 단순함이나 지루함을 덜어주며, "무심히" 접힌 듯한 주머니의 삼각형은 소매부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선을 몸 쪽으로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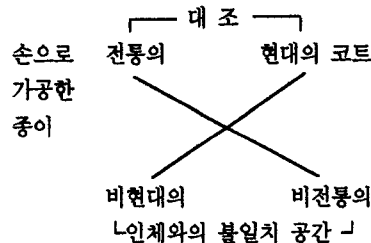
이 작품의 대부분의 선은 모두 평면 도형을 이음으로써 생긴 "명료한" 직선이며, 인체의 각 부분을 암시하면서 어른거리듯 비쳐 보이는 "불명료한" 인체의 곡선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선은 인체의 부분을 나누는 경계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목둘레와 소매 끝, 밑단선에 정리되지 않은 듯하게 늘어진 끈은 완전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코트의 완성도에 대한 도전율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전통의" 재료인 "손으로 만든" 종이의 질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기쁨에 절여지는 과정에서 생긴 "반짝이고" "매끈한" 표면 효과는 손으로 만든 종이 특유의 거칠거칠한 질감을 완화시켜 직선적이고 "현대적인" 코트의 완성도를 높여 주고 있다. 또한 기쁨을 먹이는 동양 전통의 기쁨은 종이의 불투명한 속성을 반투명으로 바꾸어 의상 속에서 어른거리는 인체의 시각적 효과를 더하며, 종이가 겹쳐지는 부분과 박음선으로 또 다른 조형적인 요소를 만들게 함으로써 시각적 다양성을 갖게 한다.

천연 소재 종이는 "밝은" 황토색으로 "자연" 그대로의 색상으로 "인간 친화적"이며 "인위적으로" 기쁨을 입힘으로써 색상이 짙어지고 깊이감을 더하여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다.

2) 아부라 가미 코트의 내용면 분석

이 코트의 표현면 분석을 통해 추출한 언어적 측면을 통해 볼 수 있는 전통 대 현대의 논리적 분절을 다음과 같은 기호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네 개의 면들이 대조를 이루는 위상적인 관계를 "손으로

23) J. Hambidge의 Reciprocal process 이론에 의하면 도형이 유사한 원리를 가질 때 그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grouping이 되며, 한 계열체(Sequential system)로 답음의 원리,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경제적인 지각의 시선(Visual line) 갖게 된다.

가공한" 대 "기계로 바느질한"으로 대립시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손으로 가공한	대	기계로 바느질한
평범한		평범하지 않은
땃땃한		유연한
재단된		접어서 생긴
의도적인		우연히(무심히)
거친(투박한)		반짝이는(매끈한)
자연적인		인위적인

이미지의 내용면의 분석은 시각적으로 표현된 의미범주와 변별 자질들이 유지하는 관계를 언어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살펴본 결과 작품의 중심 기의는 손으로 가공된 종이와 바느질된 코드로 표현된 "전통"과 "현대"의 대립과 조화를 통한 자연으로의 회귀 혹은 인간 친화적인 자세의 태도로 볼 수 있다.

3-2. 비벌리 시메스(Beverly Semmes)의 분홍색 팔²⁴⁾

비벌리 시메스의 작품은 의상의 평면화를 통해 인체의 부재를 시도하여 인간 내면의 숨겨진 본성인 우울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시메스의 대부분의 작품은 벽면에 걸 기계 함으로서 의상 속에서 인체, 즉 인간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여 존재에 대한 거부를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의 의상보다 더무늬없이 과장된 이 작품은 왜소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일종의 비아냥거림과 동시에 인간 내면의 세계의 거대함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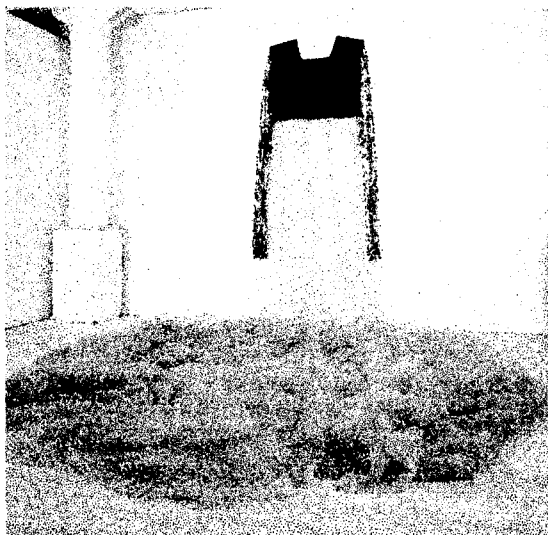


그림 2 분홍색 팔

1) 분홍색 팔의 표현면 분석

벽면과 바닥에 걸쳐 전시되어 있는 거대한 의상 작품의 시각적 자질들의 구성과 역할은

24) 월간미술, 1998년 4월 p.44

1. 구겨진 질감의 올리브그린 상의 부분
2. 분홍의 긴 팔
3. 백색의 치마 부분
4. 바닥에 놓여진 거대한 치마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분홍색 팔의 표현면의 형태는 크게 "벽면에 걸린 평면형"과 "바닥에 놓여진 입체형"의 대립구조를 중심으로 "직선적인" 도형으로 처리된 상체와 "긴 팔", "주름져 늘어진" 치마, 바닥에 "불규칙하게" "주름진" 채 놓여 있는 부분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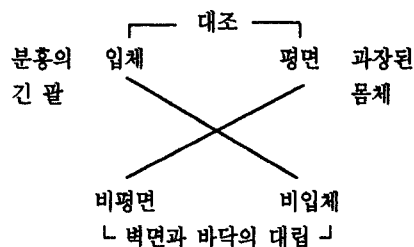
"걸려있는" 의상은 형태면에서 입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체이며 "유연한" 선의 신체 구조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볼 수 없는 완전한 평면상태로 벽면에 "세워져" 있다. "등근" 목선은 "각이진" 형태로 처리되어 있으며, 몸판의 경우도 여성의 상체 부분의 "굴곡"이 무시된 "직선의 도형"이다. 과장되어 긴 팔은 치마의 주름져진 부분과 함께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면의 바닥에 놓여져 있는 부분은 유연한 움직임이 있는 입체로 시각적인 다양함을 준다.

상체와 소매의 독특한 질감의 벨벳 소재는 빛의 반사로 인해 더 강렬해지고, "불투명하고" "투박한" 소재는 하체의 "투명하고" "유연하게" 늘어진 한 장의 쉬폰과 대조를 이루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쉬폰은 "접쳐짐"으로 인해 그 투명함의 효과가 없어지고 주름진 유연한 굴곡의 입체로 시각적 자질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분홍의" 팔은 "인정보색인" 올리브 그린의 *몸판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선명"해지고, "무채색인" "백색의" 하체의 역할로 인해 안정된 색채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하체 부분의 백색은 주름져 접쳐짐으로 인해 질어져 "채도가 낮아진" 푸른 기마의 백색으로 인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분홍색 팔의 내용면 분석

표현면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언어적 측면을 살펴보면 "입체" 대 "평면"의 논리적 본질을 다음과 같은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네 개의 면들이 대조를 이루는 위상적인 관계를 "걸린" 대 "놓인"으로 대립시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걸린	대	놓인
벽면		바닥
주름져 늘어진		직선적인
등근		각이진
상체		하체

굴곡이 진	무기력한
투명한	불투명한
유연한	무박한
접혀진	한 장의
선명한	저채도의
분홍의	무채색의

분홍색 팔의 표현면에 속한 두 개의 단위 즉, "입체"와 "평면"의 대립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의상과 바닥을 덮고 있는 주름을 통해 "인체의 왜소함/두려움"과 "인간의 위대함/우월감"의 의미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3-3. 마리안 슈틀(Marian Schoettle)의 전통의상의 안과 밖(Inside and Out of Traditional Dress) 25)

패션과 디자인 음악 등에서 혁신적인 양식이 등장했던 1980년대 런던에서 활동했던 슈틀은 "옷의 수수께끼" 연작을 퍼포먼스와 함께 발표하였다. 소재가 이어진 이중 셔츠, 밀단선이 이어진 드레스 등의 작품들을 통해 의상은 자아의 반영이라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분석대상인 "전통 의상의 안과 밖"은 얇게 비치는 실크 머슬린과 타프타로 제작된 두 개의 드레스가 밀단선에서 연결되어 한 장의 의상으로 혹은 두 점의 의상으로 겹쳐 입을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그림 3 전통 의상의 안과 밖

25) Chloe Colchester, The New Textile -trends and traditions- Rizzoli. New York. 1991. p. 155

1) "전통의상의 안과 밖"의 표현면 분석

퍼포먼스의 한 장면을 촬영한 이 작품의 시각적 자질들의 구성과 역할은

1. 인체에 입혀진 실크 머슬린 드레스 부분
2. 바닥에 놓여져 있는 사각형의 타프타 베스트 부분
3. 인체에 입혀진 부분의 겹쳐져 있는 타프타 커프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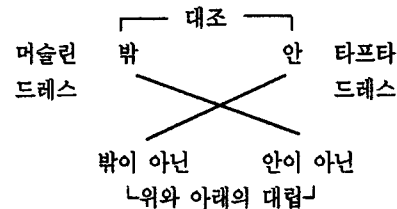
전통의상의 안과 밖은 실크 머슬린으로 된 부분과 타프타로 된 부분으로 표현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안"과 "밖"의 전복이다. 보통의 의상은 밀단선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이 작품은 사진에서 볼 때 밀단선에 또 다른 상의 형태의 사각형이 달려있어 우리에게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옷 입기"에 관한 "상상의" 여지를 주고 있다. "아래" 부분에 매달린 사각형의 "상의"를 입기 위해서는 밀단선을 중심으로 위로 겹쳐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입었을 때를 상상하면, "하나의 드레스" 위에 베스트가 달린 드레스를 "덧입은 형태"가 되며 그 과정에서 의상의 안과 밖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어 뒤집어 입은 결과가 된다.

이 작품의 실크 머슬린 부분에는 진동선과 같은 인체의 구조적인 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앞판과 뒷판 두장의 평면적인 형태의 결합으로 생긴 비구조적인 형태의 의상으로 인체가 빠져나갔을 때에는 "완전한" "평면"을 이루고 인체 위에서 인체와의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공간"과 접힌 주름, 다양하게 변화하는 외곽선을 만들며, 소재의 "유연성"으로 인한 드레이프와 주름은 "선적인" 조형감을 더해주며 외곽선은 시각적인 다양함을 줌과 동시에 타프타의 "각이 진" 형태와 대비를 이룸으로 소재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사각의 타프타 부분을 보면 인체의 대표적인 구조적인 선인 진동선을 의도적으로 도형 속에 평면화시켜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진동선은 "둥근 목선"을 반복하면서 "사각 어깨" 부분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2) 전통의상의 안과 밖의 내용면 분석

표현면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언어적 측면을 살펴보면 "안"과 "밖"의 논리적인 분절을 다음과 같은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네 개의 면들이 대조를 이루는 위상적인 관계를 "전통적인 옷입기" 대 "새로운 옷입기"로 대립시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전통적인 옷입기	대	새로운 옷입기
		(뒤집어 입은)
하나의 드레스		덧입은 드레스
완전한 평면		일치하지 않는 공간

유연성
등근 목선

카이 진
사각의 어깨

전통 드레스의 안과 밖은 하나의 드레스에 두 개의 상의를 만들어 옷입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퍼포먼스를 통해 의상의 첫 번째 해제방법이었던 안과 밖의 전복이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전통적인 옷입기에 대한 강한 반발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새로운 옷입기에 대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4. 결론

의상을 단순히 입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가 아닌 의미작용을 통해 다의성을 갖는 기호체계로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간주하여 상징체의 창조와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는 조형기호학적 측면에서의 기호사각형을 이용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포스트모던과 해체주의적 사유는 과거의 모든 양식과 디자인에 대한 회의와 단절을 시도하고, 그 결과 패션에서는 의상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안티패션 운동과 그를 넘어서 의상이 기능의 상징이라는 것에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구조적인 의상을 거부하고 의상으로부터 인체를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로 의상의 평면화 현상이 나타났다.

평면화된 의상작품 세 점을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 1) 이세이 미야케는 일본 전통의 종이를 이용한 "아부라 가미 코트"에서 전통과 현대의 대립과 조화를 통해 자연으로의 회귀, 혹은 인간 친화적인 자세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 2) 비버리 시메스는 과장된 의상을 인체에 입히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 걸음으로서 인체의 왜소함에 대한 비아냥거림과 인간의 자아 도취적인 우울감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3) 마리안 섀틀의 전통의상의 안과 밖에서는 안과 밖의 대립을 통해 옷입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듯 전통적인 옷의 개념을 뒤집어 입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여 옷에 대한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 김광현, "거시코드로서의 이데올로기 문제" 「기호학 연구」 제6집. 한국 기호학회. 문학과 지성사. 1999.
- 김복영, "옷입기"에 대한 사유 : 반전과 전복의 기호학. 박현신 의상설치전 도록. 1996.
- 김혜연, "복식조형의 공간적 특질에 관한 연구 1" 「복식 38호」 1998.
- 노만 브라이슨 외. 김윤희, 양은희 옮김 「기호학과 시각예술」 시각과 언어. 1995.

- 이승환, "몸의 기호학적 고찰" 「기호학 연구」 제3집. 한국 기호학회. 문학과 지성. 1997.
- 월간미술. 1998.
- 장마리 플로슈, 박인철 옮김, 「조형 기호학」 한길사. 1994.
- Hollander, Anne 「Seeing through Clothes」 The Viking Press. 1978.
- DeLong, Marilyn R. 금기숙 옮김,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이즘. 1997.
- Colchester, Chloe The New Textile-trends and traditions-Rizzoli. New York. 1991.
- Felshin, Nina. 「The Empty Dress -Clothing as Surrogate in Recent Art」 Independent curators Incorporated. New York. 1993.
- Hervey, Sandor, 「Semiotic Perspectives」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82.
- Miyake, Issey 「Photographs by Irving Penn」 New York Graphic Society. New York. 1988.
- Miyake, Issey 「East meets West」 Heibonsha Limited. Tokyo. 1978.